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이를 버리고 중도를 지켜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3월 28일) 2023년 5월 17일 수요일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전법포교 원력 세우다

조계종 포교원, 5월 6일 포교 원력 선포식

포교신도단체 500여 명 참석
‘전법 ON’ 슬로건으로 제시해
상월결사 정신 이어 원력 결집
“청년불자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과 각종 포교 · 신도단체들이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 는 포교 원력을 새겼다.

포교원(원장 범해)은 5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포교 · 신도단체들과 ‘전법 ON! 부처님 법 전합시다’ 라는 주제로 포교 원력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일선 포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부대중의 자긍심을 높이고, 풀뿌리 불심을 결집해 지역 · 계층 포교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범해 스님,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 전국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전법단 단장,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모였다.

포교원의 포교 원력 선포는 앉아있는 불교가 아닌 찾아가는 불교를 표방하는 상월결사 정신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지난 2~3월 인도 현지에서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직접 참여해 포교의 중요성을 크게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교원은 올해를 포교 역량 전문화 원년의 해로 삼고, 청년불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 지역사찰, 청년불자단체 등과 연계해 대학생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도순례를 통해 전해진 포교의 중요성을 다시 절감했다고 운을 떼면서 “한국불교의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야말로 우리 불교는 침몰하는 배와 같다.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처님 법을 잘 전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동강령이 육바라밀”이라고 말했다.

인도에서 1167㎞의 여정을 함께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43일간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길 위에서 일생을 보낸 부처님의 삶을 온몸으로 절감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바꿔 함께 나눠야 한다”며 “이제는 뜻 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의 재도약을 염원하는 순례길이 이어지면서 불교의 자긍심을 되찾으려는 사부대중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부회장 초격 스님(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은 앞서 펼쳐진 인도순례가 이 시대 또 다른 전도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포교와 전법만이 종단의 미래임을 명심하고 수행의 첫 걸음으로 인식해 대중 속에서 항상 함께하겠다”며 “선포식을 기점으로 전국의 교구본사와 말사들이 전법과 포교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신도연구위원회 위원장 원명 스님은 주윤식 회장과 김영석 포교사단장, 이연화 전국여성불자회 수석부회장에게 전법기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주문했다. 또한 선포식에 함께한 사부대중은 ‘부처님 법 전합시다’ 라는 글귀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과 포교 신도 단체장들이 포교원력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기부처님 목욕하세요”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는 5월 11일 관불의식 입재식을 봉행했다. 조계사 사부대중은 아기 부처상이 안치된 불단을 이운한 뒤 관불의식을 진행했다. 관불의식은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이날 의식에는 5월 9일 삭발수계식을 하고 단기 출가 중인 동자승들도 참여했다. 관불의식은 5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과 동자승이 관불의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사

불자대상에 자비신행회 · 이원욱 · 이원종 · 홍성흔 선정

5월 27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진우)는 “5월 9일 수상자 선정 회의를 열고 (사)자비신행회와 이원욱 의원, 이원종 불자, 홍성흔 불자를 올해 불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자비신행회는 1999년 창립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기부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참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로, 아동 · 청소년 · 어르신 · 소외계층 및 국제구호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광주광역시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원욱


이원종


홍성흔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신행활동을 돕고 신심을 고취시키는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 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불교 관련 각종 규제법령의 제 ·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종단의 오랜 현안인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이원종 불자는 배우로서 ‘달마야 놀자’ 영화 촬영을 위해 6개월간 행자생활을 하고, 매일 108배 수행을 하는 것은 물론 2018년부터 불교중앙박물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매년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하여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홍성흔 불자는 대학 야구선수 시절부터 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08배를 한 바 있으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해 3000배를 3번이나 하는 등 신행활동 하는 등 불자로서 모범이 되는 신행생활을 해 왔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에서 열리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시상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국보 ‘화엄사 각황전 석등’ 보존처리 시작

5월 10일 부분 해체 고불식 봉행
2025년까지 과학적 보존처리 진행

국내 최대 규모의 석등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이 보존처리에 들어간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국보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부분해체보수를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식을 5월 10일 봉행했다.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은 전체 높이 6.14m로 국내 석등 중 가장 큰 규모다. 석등은 그간 시행한 정기조사(2012, 2015, 2018년), 문화유산 특별 종합점검(2014년), 정밀안전진단(2015년) 등의 결과 석재 표면에 다수의 박리를 비롯해 화사석과 상대석 균열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19년부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으며,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분 해체 · 보존처리가 결정된 바 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석등 해체 고불식의 공덕으로 해체 보수 전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돼 천년의 광휘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제불보살님께서 가피력을 내려달라”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석등을 부분 해체해 5월 12일 대전에 위치한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이송했다. 연구원에서는 세척, 구조보강 접합, 신석 복원 등의 공정을 통해 석등의 보존 처리가 이뤄진다. 보존 처리는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령 명) 편집국 차장 윤 호 섭
2023년 5월 2일 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 www.LLF.or.kr
연등회
YEON DEUNG HOE
燃燈會
2023. 5.19.~21.
전통등전시회
5. 11.(목) ~ 5. 28.(일)
광화문광장, 조계사, 봉은사
연등행렬
5. 20.(토) 19:00 ~ 21:30
종로거리(흥인지문~종로~조계사)
대동한마당
5. 20.(토) 21:30 ~ 23:00
종각사거리
전통문화마당
5. 21.(일) 12:00 ~ 18:00
조계사 앞길
LOTUS LANTERN FESTIVAL